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文學碩士 學位論文

「ぼかし」의 의미를 나타내는
「取り立て」 조사의 비교분석



2012年 2月

釜慶大學校 大學院

日語日文學科

金 志 勳

文學碩士 學位論文

「ぼかし」의 의미를 나타내는
「取り立て」 조사의 비교분석



指導教授 孫 東 周

이 論文을 文學碩士 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12年 2月

釜慶大學校 大學院

日語日文學科

金 志 勳

金志勳의 文學碩士 學位論文을 認准함

2012年 2月



主審 崔 建 植 (印)

委員 張 相 彥 (印)

委員 孫 東 周 (印)

목 차

* Abstract	ii
1. 들어가기	1
2. 선행연구	2
2. 1 「も」	3
2.1.1 沼田善子	3
2.1.2 寺村秀夫	5
2.1.3 仁田義雄	6
2. 2 「でも」	8
2.2.1 沼田善子	8
2.2.2 寺村秀夫	8
2.2.3 仁田義雄	9
2. 3 「なんか」類	10
2.3.1 沼田善子	10
2.3.2 寺村秀夫	11
2.3.3 仁田義雄	12
3. 「ぼかし」의 의미를 가지는 「取り立て」 조사의 특징	14
3. 1 「も」	14
3. 2 「でも」	19
3. 3 「なんか」類	22
4. 「ぼかし」의 의미를 나타내는 「取り立て」 조사의 차이점	28
4. 1 「も」와 「でも」	29
4. 2 「も」와 「なんか」類	33
4. 3 「でも」와 「なんか」類	35
5. 맺음말	38
참고문헌	41
용례출전	42

A Comparative Analysis of Postposition *toritate* 「取り立て」
Representing the Meaning of *bokashi* 「ぼかし」

by Ji Hoon Kim

Department of Japanes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Pusan, Korea

Abstract

In Japanese grammar, the categorization of postposition, *toritate* consists of a part of modern Japanese grammar.

While Japanese grammar views *toritate* as a binding particle affecting the expression of the end of a sentence or adding adverbial meanings like an adverbial particle, 宮田(1948) first introduced the notion of *toritate* adding a new category which eventually triggered subsequent inquiries.

According to 仁田(2009), *toritate* is used when a speaker points out an event or context to differentiate and emphasize with other situation. *Toritate* takes the form as *ha*, *demo*, *nado*, *nanka*, *nante*, *dake*, *sika* and *ha*. *Toritate* has the meaning of additional, contrastive, definite, evaluative and descriptive *bokashi*. Among these meanings, *bokashi* smoothen the flow of whole sentences by using a specific postposition *toritate*.

Regarding the relevant research on postposition *toritate*, the researcher of this study reviewed and based on that of 沼田(1986,

1994), 寺村(1991) and 仁田(2009). It was learned that throughout the analysis of each individual meaning of *toritate*, the meaning of *bokashi* was embedded in *mo*, *demo* and *nanka*.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ompare and find out the differences among *mo*, *demo* and *nanka* meaning *bokashi* in postposition *toritate*. This conceptual framework was originated from the theory of 仁田 (2009) who distinctively expounded the meanings of *bokashi*.

The similarity is that these postpositions restrict the predicate involving with the meaning of the end of a sentence. On the contrary, in the case of the meaning of *bokashi*, the correlation between adverb and modality are noticed.

In a nutshell, *mo* takes the form of a declarative sentence carrying the meaning of descriptive modality and status adverb. *Demo* has the characteristics of statement adverbial modality and recognition modality.

However, for the case of *nanka*, there exists no restrictions with the predicate and it interacts with diverse forms of modality.

1. 들어가기

종래의 일본어문법에서는 「取り立て」 조사를 문말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係助詞로 보거나, 문에 부사적 의미를 첨가하는 副助詞로 분류하였지만, 益岡隆志(2007)에 의하면, 宮田(1948)에 의해 「取り立て」라고 하는 문법개념이 처음으로 도입되어 지금은 현대 일본어 문법연구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 宮田(1948)는 「取り立て」 조사를 문 또는 구의 일부를 특별히 부각시켜서 그 부분을 제각기 특별한 의미로서 강조하는 조사라고 정의하였으며, 그 이후 沼田(1986), 鈴木(1972a), 寺村(1981b)도 宮田(1948)가 제시한 학설들을 바탕으로 「取り立て」의 논리적 관계를 체계적으로 규명해 왔다.

필자가 「取り立て」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仁田(2009)에서 제시한 「取り立て」의 의미 분류의 궁극증에서 출발하였다. 仁田(2009)에 의하면, 「取り立て」 조사의 의미로는 「累加、対比、限定、極限、評価、ぼかし」로 분류하고 있고, 그 중 「ぼかし」의 의미에 중점을 두니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생겼다. 「取り立て」 조사 가운데 가장 복잡하고 다양한 의미를 가진 「も」의 경우를 예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春もたけなわになりました。(沼田 1986, 1994)
- (2) 夜も更けてまいりました。(寺村 1991)
- (3) 宴もたけなわとなってまいりました。(仁田 2009)

위 용례들의 자세한 분석은 後述하겠지만, 본 연구목적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간단한 언급이 필요할 것 같다.

먼저, (1)의 용례는 沼田(1986, 1994)의 「も」의 의미 분류 중 「も₃」

에 해당하며, (2)의 용례는 寺村(1991)에 의한 「XもP」의 평가적 의미 중, 「詠嘆」의 의미에 속하며, (3)의 용례는 仁田(2009)에 의한 「取り立て」 조사의 의미 중 「ぼかし」의 의미로 제시되고 있다. 즉, 「ぼかし」의 의미는 특정의 「取り立て」 조사를 사용함으로써 의미를 완곡하게 표현하여 전체적인 문장의 흐름을 부드럽게 하는 것인데, 학자들마다 비슷한 의미의 맥락을 여러 분류 기준에 근거하여 표현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위 용례에 제시된 각각의 분류들을 편의상 「ぼかし」라는 의미로 통합하여 연구할 필요성을 느꼈다.

본 연구에서는 「取り立て」 조사와 「ぼかし」와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규명한 仁田(2009)의 분류기준에 따라 「ぼかし」의 의미를 가지는 「も」「でも」「なんか」類¹⁾를 중심으로, 沼田(1986, 1994), 寺村(1991), 仁田(2009)가 제시한 「ぼかし」의 의미들을 분석하고, 그 차이점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も」「でも」「なんか」類의 의미적 특징 및 구문적 특징들을 통하여, 각각의 조사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ぼかし」의 의미를 나름으로 분석하여 수집한 용례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용례의 출전은 저명한 작가들의 일본소설을 비롯하여, 교과서에 수록된 예문 및 朝日신문에 게재된 사설(天声人語)을 중심으로 하였다.

2. 선행연구

본 연구의 테마인 「ぼかし」의 의미를 나타내는 「取り立て」 조사들의 비교분석을 위해서는 앞서 학자들이 연구한 학설들을 개관할 필요가 있

1) 仁田(2009)의 분류에 근거하여, 「なんか」「なんて」「など」는 「なんか」類로 총칭한다.

다. 먼저, 「も」 「でも」 「なんか」 類의 의미적 특징과 구문적 특징들이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의미적 특징의 범주에는 각각의 조사들이 가지는 기본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구문적 특징의 범주에는 문말표현과 관련한 술어와의 관계 및 접속방법 등을 내용으로 한다.

2.1 「も」

2.1.1 沼田善子

沼田善子(1986)는 「も」의 의미를 「單純他者肯定」의 「も₁」, 「意外」의 「も₂」, 「柔らげ」의 「も₃」로 분류하여, 沼田(1994)에서는 「も₃」의 의미를 「不定他者肯定」으로 재규정하였으며, 「取り立て」 조사의 의미를 「4組 8個」²⁾의 기본적인 개념으로 체계적으로 기술하였다. 우선 「も₁」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4) 人生の季節をも、自然の季節と同じように受け入れる。

- 2) 「自者と他者」: 「自者」는 「取り立て」 형식이 내세우는 문중의 요소이고, 「他者」는 그것에 단적으로 대비되는 자 이외의 요소이다.
「主張と含み」: 「主張」은 「取り立て」 형식이 명시하는 의미이고, 「含み」는 「取り立て」 형식이 암시하는 의미이다.
「肯定と否定」: 「否定」의 의미를 논하자면, 편의상 「だけ」의 경우를 예로 든다.
(a) 太郎だけが学校に来る。
(b) 太郎が学校に来る。
(c) 太郎以外が学校に来ない。
◇ (a)의 「主張」은 (b)이고, 「自者- 肯定」이며, 「含み」는 (c)로 「他者」인 「太郎以外」에 대해서 「太郎以外が学校に来る」라고 하는 문이 나타내는 사항은 거짓으로 「否定」되는 「他者- 否定」의 의미가 된다.
「断定と想定」: 「断定」은 「主張と含み」에 있어서 「自者と他者」에 대한 「肯定と否定」등 어떤 사항에 대해서, 화자가 그것을 참·거짓으로 판별하는 것이다.
• 太郎以外は学校に来るが、太郎は学校に来ないと思った。ところがその太郎が学校に来る。
◇ 「…と思った」라는 부분이 결국 「想定」이 된다.

용례 (4)의 「も」는, 「自者」인 「人生の季節」를 「取り立て」하고, 「他者」인 「自然の季節」과 함께 「受け入れる」에 대해 「肯定」하고 있다. 게다가 自・他の 「肯定」은 「含み」에 있어서도 「期待」³⁾라고 하는 요소가 없으므로 「単純他者肯定」의 「も₁」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은 「も₂」의 의미를 살펴보자.

(5) 彼女はたいていのことは話すのだが、実は、親友にも話せない秘密がある。

용례 (5)의 「も」는, 「自者」인 「親友」와 「他者」인 「親友以外」를 모두 「話せない」에 대해서 「肯定」하고 있다. 그러나 「も」가 「取り立て」하는 「自者」인 「親友」는 그 자체가 극단적인 정도에 있는 것으로 강조되어 받아들여지므로, 이것을 「意外」의 「も₂」라고 부른다.

다음은 「も₃」의 의미를 살펴보자.

(6) その年も押しつまった12月24日の夕方、彼は突然やって来た。

용례 (6)은 「取り立て」 조사의 「スコープ」와 관련하여 생각해 보면, 「その年が押しつまりもした」의 의미로 「B스コープ」⁴⁾가 적용되어서 「その年が押しつまった」에 대하여 「他者」는 「12月24日」을 연체 수식하는

3) 沼田(1986)에서는 「期待」, 沼田(1994)에서는 「予想」이라고 제시되어 있다.

4) 沼田(1986:147)는 「取り立て」의 「スコープ」를 「取り立て」의 기능이 작용하는 범위라고 하고, 「後方移動スコープ(Backward scope または B스コープ)」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스コー프」는 < > 로 나타냄.)

(a) 花子は〈お腹をこわした〉上に、〈風邪もひいた〉。

(b) 花子は〈お腹をこわした〉上に、〈風邪をひき〉もした。

◇ 他者は 「お腹をこわした」, 自者は 「風邪をひいた」로 (a)와 (b)는 같은 의미이며, 「取り立て」의 「스コー프」는 문의 직후까지 영향을 주므로, 「B스コー프」라고 한다.

「クリスマスイヴである」 또는 「人々が慌しく働く」 등의 의미를 연상할 수도 있다. 즉, 「他者」를 구체적으로는 想定하기가 어렵지만, 마치 「他者」가 존재하는 것처럼 표현하여 간접적인 「柔らげ」의 표현효과를 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不定他者肯定」의 「も₃」라고 한다.

2.1.2 寺村秀夫

寺村(1991)는 「取り立て」 조사 「も」를 기본적 의미와 평가적 의미로 분류하였다. 「XもP」의 기본적 의미는 X에 대해서 P를, P와 결부시키는 것으로 청자가 「X」를 듣고 「~X」가 있다고 하는 影⁵⁾와 대비해 나가는 것으로 용례 (7)을 제시하고 있다.

(7) 森さんの奥さんも小児科医です。

「XもP」의 평가적 의미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X가 되는 명사의 의미적·지시적 특징, P가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지, 각각의 담화상황에서 X와 P의 결합에 대한 화자와 청자의 공통적인 양해, 혹은 세간의 상식 등이다. 이러한 조건들을 바탕으로 寺村(1991)는 10가지 정도의 항목으로 분류하였는데, 필자의 견해로 「ぼかし」의 의미와 관련해서는 다음 항목을 제시하고자 한다.

◇ [X [보통명사] も + P [긍정] (「詠嘆」)]

5) 필자의 견해로는 寺村(1991)에서 제시하는 影의 의미는 「과의意味」와는 상반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상반의 의미라고 직접적인 언급은 되어 있지 않지만, 「取り立て総説」부분에서 살펴보면 「과의意味」란 문맥에 명시되어 있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影의 의미는 문맥상 암시되는 의미로 분석되어진다.

「XもP」의 X가 특별한 의미생성을 지니지 않고, P도 부정의 의미가 아닌 경우, 「X以外のものについて同様にP」라는 影와의 대비로 생기는 의미가 아니라, 특별한 표현 효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예전부터 사용해 온 「詠嘆」이라고 하는 言外로 암시되는 정서적인 효과이다.

(8) 年の瀬もおしつまって……

(9) 夜も更けてまいりました。

2.1.3 仁田義雄

仁田(2009)는 「取り立て」 조사인 「も」의 의미를 「累加」 「極限」 「ぼかし」로 분류하고 있다. 「累加」를 나타내는 「も」는 같은 종류의 사물이나 사항들을 나열하는 경우에 사용되며, 「極限」의 「も」는 문중의 요소를 내세워 통상은 그 사태와 관련이 될 것 같지 않은 요소가 의외로 관련되는 경우에 표현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10) 日本のアニメは、アジアもヨーロッパも人気がある。(累加)

(11) 横綱も時には投げられることがある。(極限)

「ぼかし」를 나타내는 「も」는, 문중의 요소를 내세워 同類의 것이 그 이외에도 있는 것처럼 표현하여 문의 의미를 부드럽게 한다고 한다.

(12) 君も人が悪いね。

(13) 鈴木さんの酒癖にも困ったものだ。

(12)(13)의 경우는, 사람과 사물의 바람직하지 않은 성질에 대해 서술하는 경우로, 놀람이나 어이가 없는 기분이 느껴질 때, 「も」에 의해 그러한 성질에 적합한 사항들이 그 이외에도 있는 것처럼 나타내어 문의 의미를 부드럽게 할 수 있다.

(14) 太郎ちゃんも大きくなったねえ。

(15) 夏にはあれだけ元気だったトマトも、10月に入ると朝晩の冷え込みでしなびてしまった。

(14)(15)에서는 사람과 사물의 변화에 대해 감개를 담아서 진술하는 경우에 표현되어진다.

(16) 食事の用意もできておりますので、そろそろ戻りましょうか。

(17) 部長も怒っているみたいから、早く謝った方がいいよ。

(16)(17)은 「も」를 사용한 문장과 절 뒤에 청자에게 작용할 표현을 동반하는 경우이다. 「ほかし」를 나타내는 「も」는 무언가 이유나 근거가 있는 것 같은 뉘앙스로 청자에게 의뢰와 권유 및 충고 등의 표현방법으로 작용되므로 상황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18) いずれわかることだから、わざわざ連絡することもない。(부정)

(19) そういえば、さっき見かけたような気がしないもない。(이중부정)

(18)(19)는 「ほかし」를 나타내는 「も」가 술어부분에 사용되는 경우로, 부정과 이중부정⁶⁾의 문장에서 부정의 의미를 완화시키고, 이중부정

문에서는 긍정의 의미를 부드럽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2.2 「でも」

2.2.1 沼田善子

沼田(1986)는 「取り立て」 조사로서 「でも」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20) 買物にでも出かけよう。

(21) *出かけたらしいが、大方、買物にでも、散歩にでも出かけたのだろう。

(20)에서의 「でも」는 「自者」인 「買物」와 「他者」-(예를 들면, 「散歩」와 「ジョギング」 등)도 긍정은 하고 있지만, 동시에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사항 중에서 한 가지를 예시하는 「선택적 예시」의 의미를 나타내므로, (21)의 경우는 자연스럽지 않다고 한다.

2.2.2 寺村秀夫

寺村(1991)는 「取り立て」 조사로서의 「でも」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6) 仁田義雄(2007:256)에서는, 이중부정이라는 것은, 부정의 형태가 두 가지로 겹쳐서 사용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なく {は/ も}ない」 「ないこと {は/ も}ない」 「ないで {は/ も}ない」 라는 형태를 취하며, 「なくもない」 「ないでもない」 「ないこともない」 처럼 이중부정의 형식자체에 「も」가 포함되는 경우와 「~もなくはない」 「~もないことはない」 「~もないではない」와 같은 형태로 「も」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 (22) お茶でも飲みませんか。
- (23) *お茶で飲みませんか。
- (24) お茶を飲みませんか。

용례 (22)는 「取り立て」 조사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특징을 나타낸 것으로, 「でも」에서 「も」를 분리하면 (23)의 경우가 되며, (24)처럼 격을 가지는 특징이 있다고 보았다.

다음은 「でも」의 의미를 살펴보자.

- (25) その辺のピアホールにでも入りましょう。
- (26) 前もってはかきでも出しておきなさい。
- (27) お待ちになっているあいだ、紅茶でもお飲みになりましたか？

(25)~(27)의 「でも」는 제안, 명령, 의뢰, 충고 등의 ムード가 많은 것이 특징으로, 「事柄を大まかに、控え目に限定」하고, 그 이외에도 적당한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하였다.

2.2.3 仁田義雄

仁田(2009)는 「でも」의 의미를 「極限」과 「ぼかし」의 의미로 분류하였다.

- (28) チャンピオンでも負けることがある。
- (29) *佐藤さんの家には防音室でもある。
- (30) ?難しい問題でも解こう。

(28)~(30)은 「極限」을 나타내는 의미로, (28)의 경우는 통상은 「負ける」하는 것을 생각하기 어려운 「チャンピオン」이 「でも」로 부각되어 「チャンピオンが負けることがある」라는 것의 의외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29)와 같이 단순한 사실 등을 나타내거나, (30)처럼 의지를 나타내는 문장은 자연스럽지 않다고 한다.

(31) いっしょに映画でも見ませんか。

(32) おそらく具合でも悪いだろう。

(33) 元気がないね。彼とケンカでもしたの？

(34) 紅茶でもお持ちしましょうか。

(31)~(34)는 모두 「ほかし」의 의미로 제시하고 있으며, 화자와 청자의 미실현의 행위에 대해 사용되는 경우로, 청자에게 작용할 내용이 확실하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선택사항 가운데 한 가지에 지나지 않는 제안이므로 문장의 의미를 부드럽게 한다고 한다.

2.3 「なんか」類 (なんか/ なんて/ など)

2.3.1 沼田善子

沼田(1986)는 「など」의 용법을 「並列詞」와 「取り立て」조사로 분류하여 「取り立て」조사의 「など」는 「など₁」과 「など₂」로 제시하고 있으며, 「など₁」은 「柔らげ」의 의미로 지적하고 있다.

(35) 増淵五段などそういう力戦型の傾向がありますからね。

(36) これなどよくお似合いになると存じますが……

(35)(36)의 「など」는 「自者」인 「増淵五段」과 「これ」 이외에 「他者」의 구체적인 상정이 어렵지만, 마치 「他者」가 존재하는 것 같은 뉘앙스를 가지게 하여 문의 의미를 부드럽게 하고 있다.

다음은 「など₂」의 「否定的強調」로서 제시된 의미이다.

(37) 部長は今度の仕事を、新人などにまかせた。

(38) 恥ずかしいことですが、この仕事に生甲斐を感じたことなど殆どありません。

(37)의 경우는 「自者」인 「新人」에게 「部長は今度の仕事をまかせた」라는 것은 의외라는 의미이며, (38)의 「など」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문에 사용되어 부정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

2.3.2 寺村秀夫

寺村(1991)는 「など」의 의미를 「접미사」와 「取り立て」 조사로 분류하여 「取り立て」 조사로서는 「낮은 평가」와 「경시, 겸손」 등의 의미로 (39)(40)을 제시하고 있다.

(39) 山崎編集長などにそんなことをされてたまるか。

(40) わたしになど、とてもできないことです。

2.3.3 仁田義雄

仁田(2009)는 「など」를 「접미사」 「평가」 「ぼかし」의 의미로 제시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ぼかし」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41) このブラウスなどいかがですか。
- (42) 東京に住んでいたときは、ベトナム料理などをよく食べた。
- (43) 日曜日なんかよくこのあたりをドライブします。

(41)~(43)은 「ブラウス」 「ベトナム料理」 「日曜日」 이외에도 가능성이 있는 것을 암시하여 분명히 서술하는 것을 피하는 경우로, 문장의 의미를 부드럽게 한다. 「なんか」와 「など」는 의미의 용법에는 차이가 없지만, 「など」는 비교적 딱딱한 문장에 사용되는 것에 비해, 「なんか」는 회화 등의 문장에 표현되어진다.

이상으로 선행연구 결과 「ぼかし」의 의미를 나타내는 「取り立て」 조사의 특징은 〈표 1〉과 같다.

〈표 1〉 「ぼかし」의 의미를 가지는 「も」「でも」「なんか」類의 특징

	沼田	寺村	仁田
「も」	「柔らげ」 또는 「不定他者肯定」 : 「他者」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も」로 인하여 존재하는 것처럼 표현되어 문의 의미를 부드럽게 함.	「詠嘆」 : 「XもP」의 X가 특별한 의미생성을 지니지 않고 P도 부정의 의미가 아닌 경우에, 言外로 암시되는 정서적인 효과의 의미임.	「ぼかし」 ① 사람과 사물의 바람직하지 않은 성질에 대해서술하는 경우. ② 감개를 느낀 경우. ③ 청자에게 작용할 표현을 동반하는 경우. ④ 부정문과 이중 부정문의 술어 부분에 사용되어 부정의 의미를 완화시키고, 긍정의 의미를 부드럽게 함.
「でも」	「선택적 예시」 : 「自者」와 「他者」를 긍정하지만, 동시에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사항 중에서 한 가지를 예시하는 의미임.	「제안」 : 사물을 대충 줄여서 한정하여, 그 이외에도 적당한 것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의 의미임.	「ぼかし」 : 미실현의 행위에 대해 사용되는 경우로, 청자에게 작용할 선택사항 중의 한 가지에 지나지 않은 형태의 제안의 의미임.
「なんか」類	「柔らげ」 : 「他者」의 구체적인 상정은 어렵지만, 존재하는 것 같은 뉘앙스로 문의 의미를 부드럽게 함.	「取り立て」 조사로서 「ぼかし」의 의미는 언급되어 있지 않음.	「ぼかし」 : 문중의 요소 중 한 가지를 제시하여, 분명히 서술하는 것을 피하게 되므로 문의 의미가 부드러워 짐.

3. 「ぼかし」의 의미를 가지는 「取り立て」 조사의 특징

3.1 「も」

앞서 선행연구에서 「取り立て」 조사 「も」가 「ぼかし」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를 살펴보았다.

간략하게 말하자면, 「ぼかし」의 의미는 문에 명시되어 있는 의미 이외에도 言外の 암시적 의미의 가능성도 포함하여 문의 의미를 부드럽게 하는 것이다.

필자는 「取り立て」 조사 「も」가 「ぼかし」의 의미인 경우의 용례를 통해, 부사 및 「モダリティ」와의 관련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1) 「も」가 「ぼかし」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두드러진 특징은 감개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을 때이다. 이러한 경우, 청자는 문의 의미에 동화되어 마음속에 잔잔한 여운을 느낄 수 있다.

(1) 梅雨も、そろそろ終りかけていた。(夫)

(2) もう、とうとう菊も終りになったわね。(夫)

(3) もう夏も近いと思う。(女)

(4) もう紅葉もおしまいね。(熱)

용례 (1)~(4)는 대체적으로 감개를 느낄 수 있는 표현으로, 계절의 변화에 따른 자연현상을 몸소 경험했을 때 感慨無量함을 느끼는 경우의 감개의 의미이다. 이러한 경우, 문의 특징으로는 계절과 관련성이 있는 꽃

이름, 식물, 장마 등의 명칭이 명사로 제시되어 있는 것이 돋보인다. 즉, 위 용례의 「梅雨, 菊, 夏」 등의 명사에 「取り立て」 조사 「も」가 접속이 되어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계절의 변화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감개의 의미인 경우, 부사와의 관련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5) 梅雨が終りかけていた。
- (6) 菊が終りになったわね。
- (7) 夏が近いと思う。
- (8) 紅葉がおしまいね。

위 용례 (5)~(8)은 「取り立て」 조사 「も」와 부사가 문중에 제시되지 않은 경우이다. 즉, 주어와 술어로 구성되어 있는 형태로 문의 의미는 자연스럽다. 문의 기본구조의 측면에서 본다면, 주어와 술어는 필수 요소이지만, 부사라는 개념은 「付加」의 의미로 문의 필수 요소는 아니다. 그런데, 문의 기본구조에 적절하게 표현된다면, 문의 의미를 충실하게 보충해주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부사와 함께 「取り立て」 조사 「も」도 문중의 요소를 부각시켜 문의 의미를 부드럽게 하는 특징을 감안한다면, 용례 (5)~(8)의 표현보다 용례 (1)~(4)는 청자에게 더욱 실감나는 표현이 될 수 있다.

부사의 의미와 관련해서, 山田孝雄(1936)는 「語の副詞」를 「情態副詞」「程度副詞」「陳述副詞」로 분류하였으며, 부사의 분류는 전통적으로 山田孝雄의 분류에 근거하고 있다.⁷⁾

「取り立て」 조사 「も」가 감개의 의미로 「ぼかし」의 특징을 나타내

7) 山田孝雄(1936)가 제시한 부사의 분류는 『ケーススタディ日本文法』(寺村 他1992:85)에 기재되어 있다.

는 경우, 정태부사와의 관련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태부사는 「オノマトペ」뿐만 아니라, 「かつて、しばしば、まだ、もう、そろそろ、とうとう」 등의 시간에 관계되는 것, 「あらかた、すべて、ほとんど」 등의 수량에 관계되는 것, 또는 「あえて、わざと」 등 행위의 의지적 태도의 양태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 특징으로, 용례 (1)~(4)는 시간에 관계되는 정태부사의 쓰임으로 사물의 내용에 밀착하여 속성표현을 이루게 하는 효과가 있다.

2) 자연현상이나 사태의 변화에 대해, 그 이외에도 다른 변화의 가능성의 존재를 암시하는 경우에 「取り立て」 조사 「も」는 「ぼかし」의 의미를 나타낸다.

(9) ゆっくりと水が流れ、砂州には柳の木も生えている。(1Q)

(10) 遠日には美しく豊かな日本の森林も、放置されるなどして荒れた所が少なくない。(朝日:1.6)

용례 (9)의 「も」는 정태부사의 쓰임은 없지만, 자연현상의 변화에 대해 「버드나무도 자라고 있다」는 감개의 「も」로도 의미가 통하고, 버드나무 이외에도 벚꽃나무와 플라타너스 등의 식물의 성장도 암시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상정은 어렵지만, 무언가 「他者」의 가능성을 긍정하는 경우이므로 「ぼかし」의 의미로 분석되어진다.

용례 (10)의 경우는 사태변화에 대한 놀람을 「も」의 쓰임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즉, 「豊かだ」와 「荒れる」의 의미를 「も」를 사용해서 변화 전의 모습과 변화 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다.

3) 「取り立て」 조사 「も」는 청자로 하여금 뒷문장의 의미를 암시하기도

하여, 문장 전체의 의미를 예상할 수 있도록 해준다.

(11) 今年も手ごわそうで、九州南部はこれも記録的な早さで梅雨が明けた。

(朝日:7.2)

(12) 九州では大雨が続く。首都圏も随分降りこめられた気がするが、まだこれからが長い。(朝日:6.18)

(11)(12)의 용례는 「取り立て」 조사의 스코프 측면에서 보면, 「も」 앞의 명사를 강조하는 「N스코프(직전스코프)」⁸⁾가 아니라, 뒤에 이어질 내용을 강조해서 말하고자 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므로, 「B스코프(후방이동스코프)」로 분석이 가능하다. 즉, 「取り立て」 조사 「も」는 「今年」「首都圏」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記録的な早さで梅雨が明けた」와 「これからが長い」을 배경으로 후술하고자 하는 특징이 있다.

4) 「ぼかし」를 나타내는 「も」는, 기본적으로 주로 평서문에 사용되어 화자의 판단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으로 「叙述のモダリティ」 특징을 나타낸다.

(13) 秀一郎は実力のわりに、成績もぼっとしない。(夫)

(14) 丹塗りの柱に止まっていたきりぎりすも、もうどこかへ行ってしまった。(羅)

(15) 赤トンボも舞って里は秋の匂いがした。(朝日:10.2)

(16) だいたい、同じだと言われても、ぼくは、べつにうれしくもない。(もも)

8) 沼田(1986:145)가 제시한 「N스코프」는 다음과 같다.

· つぎに、選手については、〈脚力の強弱〉を知っておくこと、〈特長〉も知らねばならない。

◇ 「脚力の強弱」과 「特長」이 대응하고 있고, 「取り立て」의 「스코프」는 「取り立て」 조사 「も」의 직전에 있는 「特長」으로, 이러한 경우 「直前스코프(Normal scope 또는 N스코프)」라고 기술되어 있다.

(17) 千江子は、昔から知っていたので、胸ときめく、ということもなかった。(夫)

용례 (13)은 「ぼかし」를 나타내는 「も」에 의해 「成績がぱっとしない」 이외에도 그것과 비슷한 사항들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어 「他者」를 긍정하는 의미를 함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용례 (14)는 「きりぎりすがどこかへ行ってしまった」라는 것으로 계절의 변화에 대한 여운이 감개를 느끼게 하는 경우이고, 용례 (15)도 같은 의미로 「ぼかし」의 의미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진다.

용례 (16)(17)은 「ぼかし」를 나타내는 「も」가 부정문의 술어부분에 사용되어진 경우로, 부정의 의미를 완화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モダリティ」의 중심적인 표현수단은 술어형식으로, 용례 (13)~(17)은 술어가 평서문의 형태를 취하므로 「叙述のモダリティ」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ぼかし」를 나타내는 「も」의 특징은 <표 2>와 같다.

<표 2> 「ぼかし」의 의미를 나타내는 「も」의 특징 분석

본 고	
「も」	<p>① 감개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경우에, 청자는 문의 의미에 동화되어 잔잔한 여운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山田(1936)가 제시한 「語の副詞」중 「정태부사」와 관련이 있다.</p> <p>② 자연현상이나 사태의 변화에 대해, 그 이외에도 다른 변화의 가능성의 존재를 암시하는 경우로, 문에 명시되지 않은 「他者」에 대한 긍정의 의미와, 변화 전의 모습과 변화 후의 모습을 뚜렷하게 해준다.</p> <p>③ 청자로 하여금 「も」를 동반한 문장과 절 뒤에 후술되는 의미를 암시하게 하여, 문장 전체의 의미를 예상할 수 있도록 해준다.</p> <p>④ 기본적으로 주로 평서문에 사용되어 화자의 판단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으로 「叙述のモダリティ」특징을 나타낸다.</p>

3. 2 「でも」

앞서 선행연구에서 「取り立て」 조사 「でも」는 「선택적 예시」와 「제안」의 경우에 「ほかし」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언급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モダリティの副詞」⁹⁾ 및 「でも」가 「ほかし」의 의미인 경우 어떠한 「モダリティ」의 특징과 관련이 있는 지 제시하고자 한다.

- 1) 「ほかし」의 의미를 나타내는 「でも」의 경우, 진술부사와의 호응 관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18) まるで出し抜けに不幸の手紙でも渡されたみたいに。(1Q)

(19) まるで精巧な武器でも手に取るように。(1Q)

(20) 父と子の二人は、まるでそのてっぺんにでもすわっているようだった。(初教)

(21) 老婆は、一目下人を見ると、まるで弩にでもはじかれたように、飛び上がった。(羅)

용례 (18)~(21)의 「でも」는 「まるで~ようだ(みたいだ)」의 형식으로, 「不幸の手紙、精巧な武器、てっぺん、弩」의 제시는 어떠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의 선택사항 가운데 한 가지의 예로 제시되어진 「선택적 예시」로서 「ほかし」의 의미를 나타낸다.

부사와 관련해서는, 정태부사와 정도부사가 사물의 속성과 정도 등을 나타내는 객관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반면, 「まるで~ようだ(みたいだ)」와 같은 진술부사는 화자의 심적인 태도를 반영하는 주관적인 의미를 가지

9) 日本語教育事典(2006:147)에 「モダリティの副詞(叙法副詞)」를, 「どうぞいらしてください」「たぶん明日は雨だろう」「どうやら彼は来ないらしい」처럼 술어형식의 叙法적인 의미를 예고 및 강조 또는 한정하는 작용을 하는 부사라고 기술되어 있다.

며, 용례 (18)~(21)은 일정한 술어형식과의 호응관계로 표현되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진술부사는 술어의 서법과 관련되는 중요한 표현수단이므로 「モダリティの副詞」로서 제시하고자 한다.

2) 「ぼかし」의 의미를 가지는 「でも」는 「認識のモダリティ」¹⁰⁾와 관련이 있다.

(22) 今はビニール傘でもというのが大方の声だろう。(朝日:6.3)

(23) たぶん薄手のアタッシュケースでも持つべきなのだろう。(1Q)

(24) たぶん室内の冷蔵庫の補充をするメイドでも予想していたのだろう。(1Q)

「認識のモダリティ」라는 것은, 정보전달문의 구성에 즈음해서 그 문에 의해 나타나는 사항과 정보에 대한 화자의 인식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문두 또는 문두에 근접한 일부의 부사와 부사적인 표현이 문말형식과 관련하여 인식적인 의미와 호응해서 문의 의미를 상세하게 하기도 하고, 예고하기도 하는 것을 말한다.

용례 (22)~(24)는 「認識のモダリティ」기본유형 가운데, 「だろう」의 용법에 관한 것이다. 「だろう」는, 기본적으로 추량을 나타내는 형식으로 상상과 사고에 의해 사태가 성립하는 것의 판단을 내리며, 공기하는 부사적인 표현으로는 「きっと、たぶん、おそらく」등으로 확언의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로, 이러한 부사도 「モダリティの副詞」로서의 기능을 하며, 위 용례들은 「たぶん~だろう」의 형태로, 「ビニール傘」「アタッシュケース」

10) 仁田 他(2003:151, 163)는 「認識のモダリティ」를 나타내는 형식으로 「断定、推量、蓋然性、証拠性」으로 분류하였다. 「蓋然性」은 사태를 가능성과 필연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는 인식적인 의미이고, 「証拠性」은 화자의 관찰과 증거에 근거하여 추정을 나타내는 형식과 전문(伝聞)을 나타내는 형식으로 분류된다.

「冷蔵庫の補充をするメイド」가 예시의 의미로 「だろう」와 호응하여 「ぼかし」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이상으로 용례 (18)~(24)는 「ぼかし」의 의미를 나타내는 「でも」가 「モダリティの副詞」와 「認識のモダリティ」의 유형과 관련되는 것이 분석되어졌다.

3) 「ぼかし」의 의미를 가지는 「でも」는 희망을 나타내는 조동사 술어 및 가정의 표현과 공기한다. 즉, 희망과 願望을 나타내는 「～たい」와 공기하기도 하고, 가정과 조건을 나타내는 「～ば、と、たら、なら」와 호응하여 「선택적 예시」의 의미를 나타낸다.

(25) ケンメリのCM曲でも聞き直し、天に駆け上る丸型テールランプを見送りたい。(朝日:1.24)

(26) その点、時夫は、蓉子の友達でも遊びに来ようものなら、さっと立って行って、自分で紅茶やコーヒーをいれて出してくれる。(夫)

(27) 友達が、その入れ方を褒めでもすれば、そこで、紅茶とコーヒーの入れ方について一くさり講釈があって、(後略) (夫)

(28) うわの空でも、心地よく歩きたい。(朝日:1.23)

(29) まあ、どこかで果物でも買っていけばいい。(1Q)

용례 (26)(27)(29)는 「でも」를 사용하여 예시를 나타내며 「たとえば、こういうことをしたら」라고 하는 의미의 가정표현으로, 실제로 화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友達が遊びに来ようものなら」등으로, 문장 전체의 의미를 완곡한 표현이 될 수 있도록 해준다.

(25)(28)은 조동사 술어인 「たい」와 호응하여, 그 밖에 선택사항이 있는 것을 함축하여 「ケンメリのCM曲、うわの空」는 한 가지에 지나지 않는

「선택적 예시」의 의미로 사용되어진 경우로, 문장의 흐름에 따라 실제로 그것을 완곡하게 가리키는 것으로 분석되어진다. 이상으로 「ほかし」의 의미를 나타내는 「でも」의 특징은 <표 3> 과 같다.

<표 3> 「ほかし」의 의미를 나타내는 「でも」의 특징 분석

	본 고
「でも」	<p>① 화자의 심적인 태도를 반영하는 주관적인 의미를 가지는 진술부사와 호응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진술부사는 술어의 서법과 관련되는 중요한 표현수단이므로, 「モダリティの副詞」로서 제시하고자 한다.</p> <p>② 어떤 사태에 대한 화자의 인식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認識のモダリティ」와 관련이 있으며, 형식으로는 「まるで~ようだ(みたいだ)」 「たぶん~だろう」 등으로, 「モダリティの副詞」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p> <p>③ 희망을 나타내는 조동사 술어인 「~たい」 및 가정표현인 「~ば、と、たら、なら」와 호응하여 「선택적 예시」의 의미를 나타낸다.</p>

3. 3 「なんか」類

「ほかし」의 의미를 가지는 「なんか」類는, 문중의 요소를 「取り立て」하여 그 이외에도 다른 선택 사항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뉘앙스로, 청자의 기분이나 상황을 배려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문말의 표현과 관련하여서는, 「も」 「でも」의 경우와는 달리 술어의 제한이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어의 문이 「命題」와 「モダリティ」라고 하는 의미적인 측면에서 성립된다면, 「なんか」類의 특징으로 「モダリティ」의 다양성을 제시하고

자 한다. 즉, 「ぼかし」의 의미를 나타내는 「なんか」類는, 「表現類型、認識、評価、説明」의 「モダリティ」11)와 관련이 있다.

〈표 4〉 「表現類型のモダリティ」

「表現類型のモダリティ」	
「情報系のモダリティ」	「行為系のモダリティ」
「叙述のモダリティ」 「疑問のモダリティ」	「意志のモダリティ」 「勧誘のモダリティ」 「行為要求のモダリティ」

「表現類型のモダリティ」라는 것은, 「表現類型」이라고 하는 문의 기본적인 성질의 결정에 관계되는 것으로, 그 기능으로는 화자와 청자가 주고받는 정보에 관계되는 「情報系のモダリティ」로 「叙述のモダリティ」와 「疑問のモダリティ」가 있으며, 화자와 청자가 실행하는 행위의 발동에 관계되는 「行為系のモダリティ」로 「意志、勧誘、行為要求」의 「モダリティ」가 있다.

1) 「ぼかし」의 의미를 나타내는 「なんか」類는, 「表現類型のモダリティ」와 관련이 있다.

(30) こちらは岩手医科大などの研究だ。(朝日:1.16)

(31) それとも、つましく暮らすスロバキアなどの小国だろうか。(朝日:10.21)

11) 본 연구에서 「モダリティ」의 표현형식 및 의미와 용법 등은 仁田 他(2003)의 학설을 중심으로 하고자 한다.

(32) 嘘をつかない人なんて、あるかしら。(女)

(33) 「やだよ。ヒモ遊びをしていて、心臓発作なんかを起こしたら」(ピ)

용례 (30)은 「叙述のモダリティ」로, 화자의 판단을 청자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가지는 「모다리티」로서 평서문에 표현되어, 「岩手医科大」 이외에도 「他者」존재의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으로 「ぼかし」의 의미와 관련되어진다.

용례 (31)(32)는 「疑問のモダリティ」로, 용례 (31)의 「だろうか」는 의문점의 해결을 향한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용례 (32)의 「かしら」는 어떠한 명제인 「嘘をつかない人」를 예시의 의미로 제시하여 화자의 생각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치우쳐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어진다.

용례 (33)은 「行為要求のモダリティ」¹²⁾의 「勧め」의 기능에 관한 것으로, 술어부분에 동사의 조건형인 「たら?」는 「たらどうか?」와 「たらいかがか?」의 의미인 「心臓発作を起こしたらどうか?」를 예시의 의미로 제시하여 청자에게 질문을 꺼내는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분석되어진다.

2) 「ぼかし」의 의미를 가지는 「なんか」類는, 「認識のモダリティ」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34) 上越市ではきょう、レルヒ像への献花や「日本スキー発祥の火」の採火がある。「レルヒさんカレー」もお目見えするなど地元は盛り上がっているそうだ。(朝日:1.12)

12) 仁田 他(2003)는 「行為要求のモダリティ」의 기능으로, 「命令、依頼、勧め、禁止」를 제시하고 있다.

- (35) 講演会などで由来を知ると、子供たちは悲しい顔になるそうだ。(朝日:3.3)
- (36) 伊豆の熱海など暖地ではもう見頃らしい。(朝日:2.6)
- (37) 「政治というのは、声が高いわりには非力で、人間を本当に幸福にしたことな
どなかったのではないか」(朝日:9.1)
- (38) 「陽ちゃんね。引っこしてからも、水を飲むちようなんか見ることないと思
う。」(初教)

용례 (34)(35)는 「認識のモダリティ」형식 중에서 「証拠性」¹³⁾의 범주에 해당한다. 「(する)そうだ」의 형태인 「地元は盛り上がっているそうだ」와 「子供たちは 悲しい顔になるそうだ」로, 정보의 전달이 「他者」로 부터 들어온 것을 나타내며, 그러한 정보를 청자에게 전달하는 기본적인 용법으로 「お目見えする、講演会」가 예시로 제시되어 있다. 용례 (36)의 「~らしい」도 마찬가지로 「証拠性」의 유형으로, 「伊豆の熱海」를 관찰한 것을 증거로 미지의 사항들을 확정하는 형식의 예시로 제시되어 「ほかし」의 의미로 분석되어진다.

그 외의 「認識のモダリティ」형식으로는, 용례 (37)(38)을 제시하고자 한다. 용례 (37)은 술어에 「のではないか」가 사용되어진 용법으로, 「のだ」의 부정의문의 형식이 「認識のモダリティ」의 형식으로 고정화된 것으로, 화자의 판단이 아직 성립하지 않으면서도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용례 (38)의 특징은 「知覚動詞」 및 「思考動詞」가 「する形」을 취하여 「認識のモダリティ」형식을 담은 형태로 「思考動詞」인 「思う」의 사용으로 화자의 판단과 의견을 청자에게 표명하는 표현으로 분석되어진다.

13) 仁田 他(2003)는 「証拠性」의 범주에 「ようだ、らしい、(し)そうだ、(する)そうだ」등을 언급하였다.

3) 「ほかし」의 의미를 나타내는 「なんか」類는, 「評価のモダリティ」와 「説明のモダリティ」의 형식을 취한다.¹⁴⁾

(39) 風態なんかは、どうでもいい。(中教)

(40) 座禅なんかしたら、もう少し捌けそうなものだ。(猫)

(41) 子供のために、などと古風な道学者みたいな事を殊勝らしく考えてみても、何、子供よりも、その親のほうが弱いのだ。(父)

용례 (39)의 「てもいい」는 허가와 허용을 나타내는 「評価のモダリティ」 유형으로 「風態」가 예시의 의미로 제시되어 사태의 실현이 허용되어 지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로 분석되어진다.

용례 (40)(41)은 「説明のモダリティ」를 나타내는 유형인 「ものだ」와 「のだ」로 표현되어있다. (40)의 「ものだ」는, 일반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지는 행위를 화자가 제시하는 경우로, 「~なら、~たら」와 공기하여 청자로 하여금 간접적으로 행위의 실행을 권유하는 경우의 의미로 분석되어진다. (41)의 「のだ」는, 사태를 청자에게 인식시키려고 하는 화자의 태도가 표현되어지는 의미로, 선행문맥의 내용인 「子供よりも、その親のほうが弱い」라는 의미로 문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있다. 이상으로 「ほかし」의 의미를 나타내는 「なんか」類의 특징은 <표 5>와 같다.

14) 仁田 他(2003:91)는 「評価のモダリティ」의 기본적인 의미로, 「必要、許可 및 許容、不必要、不許可 및 非許容」으로 제시하였으며, 「説明のモダリティ」의 형식으로 「のだ、わけた、ものだ・ことだ」등을 범주에 두고 있다.

〈표 5〉 「ほかし」의 의미를 나타내는 「なんか」類의 특징 분석

	본 고
「なんか」類	<p>① 「表現類型のモダリティ」 중에서, 화자의 판단을 청자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가지는 「叙述のモダリティ」 및, 어떤 명제에 대하여 화자의 판단이 성립하지 않는 것을 나타내는 「疑問のモダリティ」의 형태로 「だろうか」와 「かしら」가 있으며, 화자가 청자에게 행위의 실행을 요구하는 「たら?」의 형태로 「行為要求のモダリティ」의 특징을 가진다.</p> <p>② 「認識のモダリティ」 형식 중에서 「証拠性」의 유형인 「(する)そうだ」의 형태로 「他者」로부터 들은 정보를 청자에게 전달하는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며, 「~らしい」의 형태로 관찰한 것을 증거로 미지의 사항들을 확정하는 특징을 가진다.</p> <p>그 외의 「認識のモダリティ」 형식으로 화자의 판단이 아직 성립하지 않지만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のではないか」가 있으며, 술어에 「知覚動詞」 및 「思考動詞」의 사용으로 화자의 판단과 의견을 청자에게 표명하는 특징을 가진다.</p> <p>③ 「評価のモダリティ」 형식 중에서 「~もいい」라는 형태로 사태의 실현이 허용되어지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나타낸다.</p> <p>「説明のモダリティ」를 나타내는 형태인 「ものだ」는 일반적으로 바람직한 행위를 청자에게 제시하는 경우에 사용되어지며, 「のだ」는 청자가 화자로 하여금 사태를 인식시키려고 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특징을 가진다.</p>

4. 「ぼかし」 의미를 나타내는 「取り立て」 조사의 차이점

앞서 「ぼかし」의 의미를 나타내는 「取り立て」 조사인 「も」「でも」「なんか」類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를 간략하게 통합하여 보면 <표 6>과 같다.

<표 6> 「ぼかし」의 의미를 나타내는 「も」「でも」「なんか」類의 특징

본 고	
「も」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문의 의미에 동화되어 잔잔한 여운을 느낄 수 있는 감개의 의미를 함축하는 경우, 「정태부사」와 관련이 있다. ② 자연현상이나 사태의 변화에 대해, 구체적인 상정이 어려운 「他者」에 대한 긍정의 의미와, 변화 이전의 모습과 변화 이후의 모습을 뚜렷하게 해준다. ③ 「も」를 동반한 문장과 절 뒤에 후술되는 의미를 암시하게 하여, 문장 전체의 의미를 예상할 수 있도록 해준다. ④ 기본적으로 주로 평서문에 사용되어 화자의 판단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으로 「叙述のモダリティ」특징을 나타낸다.
「でも」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화자의 심적인 태도를 반영하는 진술부사와 호응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진술부사는 「モダリティの副詞」로서 제시하고자 한다. ② 어떤 사태에 대한 화자의 인식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認識のモダリティ」와 관련이 있으며, 「モダリティの副詞」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③ 희망을 나타내는 조동사 술어 및 가정표현과 호응하여 「선택적 예시」의 의미를 나타낸다.

「なんか」類	<p>① 「表現類型のモダリティ」 중에서, 「叙述のモダリティ」 「疑問のモダリティ」 및 「行為要求のモダリティ」의 특징을 가진다.</p> <p>② 「認識のモダリティ」 형식 중, 「証拠性」의 유형으로 「(する)そうだ」와 「~らしい」의 형태를 취하여 伝聞을 나타내는 형식과 화자의 관찰과 추정을 나타내는 형식을 취하기도 한다. 그 외의 「認識のモダリティ」 형식으로, 「知覚動詞」 및 「思考動詞」 등도 명제내용에 대한 화자의 인식적인 방법을 나타내는 것이 있다.</p> <p>③ 사태에 대한 화자의 평가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評価のモダリティ」 형식과, 문과 선행문맥의 관계를 나타내는 「説明のモダリティ」 형식을 취한다.</p>
--------	--

필자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ぼかし」의 의미를 나타내는 「も」「でも」「なんか」類의 차이점을 규명하는 것을 연구결과로 하고자 한다.

4.1 「も」와 「でも」

「も」와 「でも」는 「取り立て」 조사로서 「ぼかし」의 의미를 나타내는 공통점이 있다. 각각의 조사들이 나타내는 「ぼかし」의 의미는, 청자를 배려한 표현에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많고, 직접적으로 말하기가 어려운 것을 전할 때에 화자의 생각을 청자의 기분과 상황을 고려하여 부드러운 어조로 표현하는 경우에 사용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즉, 「も」와 「でも」는 문에 명시되어 있는 의미 이외에도, 함축되어 있는 「他者」의 가능성을 긍정하는 공통점을 가진다.

(42) 今日もまた雨か……。しかたないわね。菜種梅雨だもの。(中教)

(43) きょうも、朝早くに畑でトマトを採って、リヤカーでここまで運んで来たんだ。

(もも)

(44) デートに誘われて断る理由もなかった。(1Q)

(45) 芥川賞でもとったら、ちょっとした話題になると思わないか。(1Q)

(46) その点、時夫は、蓉子の友達でも遊びに来ようものなら、さっと立って行って、自分で紅茶やコーヒーをいれて出してくれる。(夫)

(47) せめてお前だけでも正気でいてくれ。(熱)

위 용례 (42)~(44)는 「取り立て」 조사 「も」가 「ぼかし」의 의미인 경우이다. (42)(43)의 「も」는, 「も」 직전의 「今日」「きょう」를 강조하는 「N스コープ」 보다는 뒤에 이어질 배경을 서술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면, 「B스コープ」가 자연스러운 문이다. 즉, 「も」가 이러한 「B스コー프」를 가지는 특징은, 「他者」의 존재를 긍정하는 「ぼかし」의 의미와 관련된다. 용례 (44)는 부정문의 경우에 「ぼかし」의 「も」가 사용되어, 「は」 대신에 「も」를 사용함으로 「柔らけ」의 효과가 있다.

용례 (45)~(47)의 「でも」의 경우는, 「~か何か」라는 의미로 선택의 가능성이 있는 것을 나타내면서 「例えばこれ」로 「取り立て」할 수 있는 요소를 제시하는 「선택적 예시」의 경우로, 「ぼかし」의 의미와 관련이 있다.

다음은 「取り立て」 조사 「も」와 「でも」의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取り立て」 조사 「も」와 「でも」는 제각기 술어와의 제한이 있으므로, 문말의 형식과 관련하여 「モダリティ」의 유형에도 차이점이 있다.

(48) 秀一郎も決して鈍子ではない。(夫)

- (49) あなたも熱帯樹の信者なのね。(熱)
- (50) 今さら、銀のプローチなんか買ってもらいたくもなかった。(夫)
- (51) 桜の名所と言っても、今のように人で埋まるということもなかった。(夫)
- (52) どうやらそれは口先だけの表現でもないようだった。(1Q)
- (53) 害のない珍しい動物でも見るみたいに。(1Q)
- (54) 空に浮かんだ月は同じでも、私たちはあるいは別のものを見ているのかもしれない。(1Q)
- (55) それが人間のしるしでもあるかのように。(熱)

「も」의 경우로, 용례 (48)~(51)은 「表現類型のモダリティ」 가운데, 평서문의 형태로 「叙述のモダリティ」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평서문이 청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는 측면을 생각해 보면, 동작과 변화 등의 動的인 사태를 전하는 것도 가능하고, 존재와 사람의 성질 등의 靜的인 상황을 전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용례 (48)은 「秀一郎」가 둔한 성질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정적인 상황을 전하는 평서문이다. 용례 (49)는 「熱帯樹の信者」가 「あなた」 이외에도 존재하는 것을 암시하여 서술한 것이 특징이다. 용례 (50)(51)은 「ぼかし」의 「も」가 부정의 「ない」앞에 위치하여, 문의 의미를 한결 부드럽게 하는 효과가 있다. 즉, 용례 (48)~(51)의 경우에, 「は」를 사용하면 성질이나 사태를 특정지어 구분하는 주제로서의 느낌이 다소 있을 수 있지만, 「も」라는 「取り立て」조사를 사용하면, 어떤 성질이나 상황이 그 사람이나 그 사태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부여된다. 용례 (48)은 바람직하지 못한 성질은 아니지만, 사람이나 사태가 그다지 좋지 않은 성질이나 상황을 전하는 경우는 「は」대신에 「も」의 사용으로 좀 더 원만한 분위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에 반해 「でも」의 경우로, 용례 (52)~(55)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태와 미실현의 행위에 대해 선택지와 가능성의 한 가지를 나타내므로, 권유나 제안문의 형태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 외에 추량과 가정을 나타내는 문에도 사용되어진다. 어떤 사태에 대해서 화자가 인식해서 받아들이는 것을 「認識のモダリティ」라고 한다면, 용례 (52)~(55)의 경우, 문말의 표현으로 「ようだ、みたいだ、かもしれない」는 화자의 생각이나 느낌이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認識のモダリティ」로 파악이 되어진다.

용례 (52)(53)(55)는 술어부분의 「よう(に)だ、みたいに」의 표현으로, 「それは口先だけの表現」「害のない珍しい動物」「人間のしるし」는 화자의 관찰에 근거하여 추정된 것을 서술하는 「証拠性」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認識のモダリティ」의 성질 가운데, 「証拠性」의 유형과 관련지어 분석이 가능하다. 용례 (54)는 「かもしれない」가 술어로 표현되어, 화자가 어떤 사태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즉, 「別のものを見る可能性」을 청자가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정보로서 문에 표현되어 있고, 이러한 의미로 사태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 인식적인 의미인 「蓋然性」의 성질로 「認識のモダリティ」특징의 범주에 포함된다.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위 용례 (48)~(55)는 「取り立て」조사 「も」와 「でも」가 「ぼかし」의 의미인 경우에 나타나는 특징들로, 「も」의 경우는, 평서문에 주로 사용되어 「表現類型のモダリティ」가운데, 「叙述のモダリティ」특징을 가지며, 문의 성격은 이미 확정된 사태 또는 상황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でも」의 경우는, 미실현의 행위에 관련된 것이므로, 「認識のモダリティ」와 관련되어 「も」와 기본적으로 성격을 달리한다. 아울러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 「モダリティ」의 형식에 차이점이 있는 것이 분석되었으며, 「ぼかし」의 의미인 경우에 「取り立て」조사 「も」와

「でも」는 환언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4.2 「も」와 「なんか」類

「取り立て」조사 「も」와 「なんか」類는, 제각기 「ぼかし」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モダリティ」의 측면에서는 「も」의 경우, 술어의 제한으로 기본적으로 평서문에 사용되어지며, 「질문, 의지, 권유, 행위요구」등의 문에는 쓰임에 제한이 있는 반면에 「なんか」類의 경우는, 술어에 제한이 거의 없으므로 「평서문, 의문문, 의지, 권유」등의 문에 쓰임이 자유로운 특징이 있다. 이러한 차이점을 근거로, 다음의 용례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 (56) もう、そろそろ、外もぬくうなって来たから、行って遊んでおいで。(夫)
- (57) 一週間ほどの岩手の旅も存分に手足を伸ばして楽しむことができる。(高教)
- (58) 洗濯など、機械に強いから平気である。(夫)
- (59) 三太郎おじさんなど、柿の実のうれるころになると、まるで子どものようにうれしそうに顔をして、柿をもらいにきました。(港)

우선 「も」와 「なんか」類의 공통점으로 용례 (56)~(59)가 해당된다. 용례 (56)은 「ぼかし」의 의미인 「も」를 사용한 절의 뒤에 청자에게 바라는 표현을 「～てください」라는 형태로 표현하여, 청자로 하여금 화자의 요구에 대한 결정권을 부여하는 의미로 「表現類型のモダリティ」 가운데, 「行為要求のモダリティ」로 볼 수 있다. 용례 (57)의 경우는 「岩手の旅」가 「自者」로 문중에 제시되어 있지만, 「岩手の旅」이외의 「他者」의 가능성도 예측되어진다. 용례 (58)(59)는 「洗濯、三太郎おじさん」이 「선

택적 예시」의 의미로 제시되어 평서문의 형태로 「表現類型のモダリティ」 가운데, 「叙述のモダリティ」 특징을 나타낸다. 즉, 공통점으로는 「ぼかし」의 의미와 관련하여 「表現類型のモダリティ」 범주에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も」와 「なんか」類의 차이점으로 용례 (60)~(65)의 경우이다.

(60) 今日もすばらしいけばけばしさね、お母様。(熱)

(61) お父様もお年だし、先を考えてごらんなさい。(熱)

(62) そんなことを言いながら、しかし駒子は立ち上りそうもなかった。(雪)

(63) (前略)私の一種の友情などは軽いものであるかもしれない。(高教)

(64) 明治から昭和初めの法学者で東大などの教授だった岡田三面子の名で川柳を詠んでいた。(朝日:3.1)

(65) もう、もものことなんか、顔にないようだ。(もも)

용례 (60)은 「も」로 인하여 「今日」이외에 「昨日、おととい」도 「けばけばしかった」라는 의미로 「他者肯定」이며, 「表現類型のモダリティ」 가운데, 「叙述のモダリティ」 특징을 나타낸다. 용례 (61)은 「も」를 동반한 절 뒤에 「~なさい」라는 술어의 표현으로 가장 직접적으로 청자에게 행위를 요구하는 명령의 형태이며, 이러한 경우는 「表現類型のモダリティ」 가운데, 「行為要求のモダリティ」 특징을 나타낸다. 용례 (62)는 앞서도 언급한 바가 있는 것으로, 「も」로 인하여 부정의 의미가 완화되는 효과가 있는 경우이다.

이에 반해, 「なんか」類는 다양한 형태의 「モダリティ」로 표현된다. 용례 (63)은 술어부분의 「かもしれない」의 쓰임으로 「一種の友情などは軽いもの」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認識のモダリティ」로 분석되어진다. 용례

(64)는 「東大」 이외에도 「他者」의 가능성이 보이는 「ぼかし」의 의미로, 「叙述のモダリティ」 특징을 나타낸다. 용례 (65)는 「たとえば、ものことなんか顔にないようだ」의 의미로, 화자의 관찰에 근거하여 추정된 것을 서술하는 「証拠性」을 나타내는 「認識のモダリティ」로 분석되어진다.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も」는 기본적으로 평서문의 형태로 「表現類型のモダリティ」 유형 중, 「叙述のモダリティ」 및 「行為要求のモダリティ」의 특징을 나타내는 반면, 「なんか」類의 경우는 「表現類型のモダリティ」와 「認識のモダリティ」 등의 특징이 파악되며, 문의 성격이 다르므로, 대부분의 경우 「も」와 환언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진다.

4.3 「でも」와 「なんか」類

「でも」와 「なんか」類도, 의미론적으로 「ぼかし」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에 공통점을 가지며, 술어의 서법과 관련되는 「モダリティ」의 특징과 관련하여서는 차이점이 분석되어졌다.

- (66) とりわけ、特急でも半日がかりの帰郷の旅では、途中から、まるで病人を一人道連れにしているようなあんばいになる。(高教)
- (67) 春が立てば、山口さんの店でも「雪」が消え、緑の餡も鮮やかなわらび餅「春かぜ」が並ぶ。(朝日:1.20)
- (68) (前略)お友達が帰りにお湯へでも誘ってくれて、私がお家にいなかったら、あんまりだわ。(雪)
- (69) 同じ雪国のうちでも駒子のいる温泉村などは軒が続いていないから、島村はこの町で初めて雁木を見るわけだった。(雪)
- (70) 県内では、旬を迎えるサクランボなどの観光農園も客離れにあえいでいる。

(朝日:6.1)

(71) 企業など大口需要家に15%の節電を求める強制措置だ。(朝日:7.2)

용례 (66)~(68)은 「特急、山口さんの店、お湯」가 문에 명시된 「自者」로 긍정하는 의미이고, 구체적인 상정은 어렵지만, 함축된 「他者」의 존재도 긍정하는 「선택적 예시」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용례 (66)의 경우는 「まるで」라는 「モダリティの副詞」를 동반하여, 화자의 심적인 마음을 자세히 나타내고 있으며, 용례 (67)(68)은 「~ば、たら」의 가정 표현과 호응하여, 미실현의 상황을 전제로 하는 「でも」의 특징을 볼 수 있다.

용례 (69)~(71)은 「自者」인 「駒子がいる温泉村、サクラボ、企業」이 완곡적인 의미로 표현되어, 「自者肯定、他者肯定」의 의미로 「ぼかし」의 특징을 명확하게 해 주는 것으로 분석되어진다.

다음은 「でも」와 「なんか」類의 차이점을 살펴보자.

(72) そのへんのことについては、またいつか飯でも食ってゆっくり話をしよう。(1Q)

(73) ぶらぶらと、センターラインあたりで深呼吸でもして、ささやかな非日常を味わってみよう。(朝日:1.23)

(74) 快くなって、君を自転車のうしろへのせて、一緒に海へでも行く話をしようよ。(熱)

(75) ここで編物でもしていきましょう。(熱)

(76) あなた何かこの可哀想な病人に、下らない作り話でもしたんですか?(熱)

(77) 夏休みでも思いっきり遊ばせてやりたい。(朝日:7.25)

(78) 九州などを除き、飛散量は平年より多めらしい。(朝日:2.4)

(79) 熊なんか、もっと高い岩棚から落ちたって、体はちっとも傷がつかないそうだ

よ。(雪)

(80) 自分の縮みを島村は今でも「雪晒し」に出す。誰が肌につけたかしのれない古着を、毎年産地へ晒しに送るなど厄介だけれども、昔の娘の雪ごもりの丹精を思うと、やはりその織子の土地でほんとうの晒しかたをしてやりたいのだった。(雪)

(81) 縮のことを書いた昔の本にも唐の秦韜玉の詩などが引かれているが、機織女を抱えてまで織らせる家がなかったのは、(後略)(雪)

(82) 島村は一人旅の温泉で駒子と会いつづけるうちに聴覚などが妙に鋭くなって来ているのか、海や山の鳴る音を思ってみるだけで、その遠鳴が耳の底を通るようだった。(雪)

먼저 「でも」의 경우, 용례 (72)~(75)는 술어부분이 「~しよう」「~みよう」「~いましょう」와 같은 의지동사로 이루어져서 화자가 행위실행을 결정한 것을 나타내는 의지의 표출을 나타내므로, 「表現類型のモダリティ」 유형 중에서 「意志のモダリティ」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飯、深呼吸、海、編物」는 「선택적 예시」의 의미로 제시되어 있다. 용례 (76)은 「作り話」가 「선택적 예시」의 의미로 질문의 형태로 쓰임이 가능하고, 용례 (77)은 희망을 나타내는 조동사인 「~たい」와 호응한 경우로 「夏休み」이외의 「他者」도 긍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진다.

이에 반해 「なんか」類에 관한 것으로, 용례 (78)~(82)의 경우를 살펴보면, 용례 (78)은 문의 내용을 伝聞한 것을 나타내는 「~によると」가 생략되어 있는 듯하지만, 「명사+らしい」의 형태로 무언가의 증거에 근거한 인식을 나타내는 「認識のモダリティ」로 분석되어진다. 용례 (79)는 「(する)そうだ」의 형태로 「他者」로부터 「熊は高い岩棚から落ちたって、

体はちっとも傷がつかない」라고 들은 정보를 청자에게 전달하는 가장 기본적인 용법으로 「証拠性」을 나타내는 「認識のモダリティ」로 분석되어진다. 용례 (80)의 경우는 「説明のモダリティ」로, 「雪晒し」에 관한 내용을 청자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문말의 「のだった」의 형태로 제시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용례 (81)은 「唐の秦韜玉の詩」가 「예시」의 의미로 인용이 되어 「ぼかし」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용례 (82)는 「モダリティの副詞」와의 호응은 없지만, 「海や山の鳴る音を思ってみるだけで、その遠鳴が耳の底を通るようだった」라는 의미로 보아 화자의 심경을 충분히 유추하여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認識のモダリティ」특징으로 분석되어진다.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의미론적으로 「ぼかし」의 의미로는 「自者肯定、他者肯定」의 공통점이 있고, 술어의 서법인 「モダリティ」와 관련해서, 「でも」의 경우는 「表現類型のモダリティ」유형 중에서 「意志のモダリティ」특징을 나타내며, 희망의 조동사 술어로 미실현의 상황에 대한 기대나 바람을 나타내는 특징을 지닌다. 「なんか」類의 경우는 「명사+らしい」와 「(する)そうだ」의 형태로 「認識のモダリティ」와 관련이 있으며, 「のだった」의 형태로 「説明のモダリティ」와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다. 그리고 「ぼかし」의 의미인 경우의 「でも」와 「なんか」類는 「認識のモダリティ」와 관련성이 있으나, 권유나 제안 등을 나타내는 경우에만 「でも」와 「なんか」類는 환언이 가능하다.

5.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取り立て」조사 가운데, 「ぼかし」의 의미를 나타내는 「も」「でも」「なんか」類의 특징을 분석하여, 차이점을 규명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두었다. 앞서 沼田(1986, 1994), 寺村(1991), 仁田(2009)가 여러 의미들로 「ぼかし」와 관련해서 분류를 하였는데, 학설에 따라 제시한 용례의 특징들을 분석한 결과, 仁田(2009)가 제시한 「ぼかし」의 의미와 같은 맥락이었으므로, 여러 의미들을 통합하여 「ぼかし」라고 명명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ぼかし」의 의미를 나타내는 「も」「でも」「なんか」類의 특징은, 술어의 서법에 제한이 있었으므로 「モダリティ」와 관련하여 차이점을 찾을 수 있었다. 즉, 「も」의 경우는, 주로 평서문의 형태이므로 「表現類型のモダリティ」 유형 중에서 화자의 판단과 정보를 전달하는 「叙述のモダリティ」와, 청자로 하여금 화자의 요구에 대한 결정권을 부여하는 「行為要求のモダリティ」의 특징이 있었고, 화자가 감개를 느끼는 경우에 주로 정태부사의 쓰임이 분석되었다. 「でも」의 경우는, 실현되지 않은 사태와 행위에 대해 선택지와 가능성의 한 가지를 나타내므로, 「ぼかし」를 나타내는 경우는 권유나 제의, 추량 및 질문문의 형태를 나타낸다. 이러한 술어의 특징들은 화자의 인식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認識のモダリティ」와 관련된다. 그러므로 화자의 관찰에 근거하여 추정된 것을 서술하는 「証拠性」의 유형인 「～ようだ、～みたいだ」와, 화자가 어떤 사태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 「蓋然性」의 유형인 「～かもしれない」, 추량을 나타내는 형식으로 사고에 의해 사태가 성립하는 것의 판단을 내리는 유형인 「～だろう」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리고 「～よう」의 형태로 「表現類型のモダリティ」 유형 중에서 「意志のモダリティ」 및, 희망을 나타내는 조동사 및 가정표현과의 호응을 비롯하여, 화자의 심적인 태도를 반영하는 진술부사(モダリティの副詞)와의 호응도 분석되었다. 「なんか」類의 경우는, 술어와의 제한이 거의 없으므로, 평서문과 의문문을 비롯하여 권유 및 제의를 나타내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他者」로부터의 정보를 근거로 미지의 사

실을 확정하는 「～らしい」, 「他者」로부터의 정보에 의해서 알게 된 지식을 청자에게 전달하는 「(する)そうだ」, 「～かもしれない」, 「～ようだ」의 형태로 「認識のモダリティ」의 유형과 관련성이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을 화자가 제시하여 청자로 하여금 행위의 실행을 권유하는 「～ものだ」, 사태실현이 허용되어지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인 「～てもいい」의 형태로 「評価のモダリティ」로 표현이 되기도 하며, 사태를 청자에게 인식시키려고 하는 화자의 태도가 반영되는 「～のだ」의 형태인 「説明のモダリティ」 등, 여러 종류의 「モダリティ」의 다양성이 특색이다. 「ぼかし」의 의미를 나타내는 「も」 「でも」 「なんか」類는 술어의 특성상 기본적으로 환언할 수 없는 특징이 있지만, 청자에게 권유나 제안을 하는 경우에 「でも」와 「なんか」類는 환언이 가능하다.

여러 학자들이 이론을 근거로 「ぼかし」의 의미를 규명하고 있는 것은 그 만큼 「ぼかし」의 자리매김이 중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요약하자면, 「君は人が悪いね」와 「君も人が悪いね」의 경우를 비교해 본다면, 「は」 보다는 「も」의 표현으로 「自者」인 「君」 이외에도 「他者」의 가능성을 긍정하여 부드러운 의미가 성립이 되므로, 청자를 배려한 표현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로 「ぼかし」에 관한 연구는 충분한 가치가 있으리라 여겨진다.

◀ 参考文献 ▶

- 沼田善子(1986) 「第2章 とりたて詞」 『いわゆる日本語助詞の研究』 凡人社
- 寺村秀夫(1991) 『日本語のシンタクスと意味Ⅲ』 くろしお出版
- 寺村秀夫 他(1992) 『ケーススタディ日本文法』 桜楓社
- 沼田善子(1994) 「その後の「も」」 『文芸言語研究(言語篇)』 25 筑波大学
- 沼田善子(1995) 『「も」の言語学』 ひつじ書房出版
- _____ (1996) 『日本語文法セルフマスターシリーズ5』 くろしお出版
- 砂川有里子 他(2002) 『教師と学習者のための日本語文型辞典』 くろしお出版
- 仁田義雄 他(2003) 『現代日本語文法④』 くろしお出版
- _____ 他(2006) 『新版日本語教育事典』 大修館書店
- _____ 他(2007) 『現代日本語文法③』 くろしお出版
- 益岡隆志(2007) 『日本語モダリティ探究』 くろしお出版
- 影山太郎(2009) 『日英対照 形容詞・副詞の意味と構文』 大修館書店
- 仁田義雄 他(2009) 『現代日本語文法⑤』 くろしお出版

◀ 用例出典 ▶

- (熱) 三島由紀夫(1986) 『熱帯樹』新潮社
(料) 宮沢堅治(1990) 『注文の多い料理店』新潮文庫
(セ) _____(1996) 『ゼロ弾きのゴーシュ』角川文庫
(夫) 曾野綾子(1998) 『夫婦の風景』다락원
(高教) 安岡章太郎 他(2001) 『高校教科書選』다락원
(ビ) 群ようこ(2001) 『ビーの話』筑摩書房
(港) 壺井栄(2003) 『港の少女』다락원
(猫) 夏目漱石(2003) 『吾輩は猫である』新潮社
(もも) 山本けんぞう(2003) 『バグダッドのモモ』アンドリュース・プレス
(雪) 川端康成(2006) 『雪国』新潮社
(中教) 宮沢堅治 他(2007) 『日本の中学校の教科書選』다락원
(羅) 芥川龍之介(2007) 『羅生門』角川書店
(近) _____ 他(2008) 『近代名作短篇小説選』다락원
(女) 太宰治(2009) 『女生徒』角川文庫
(初教) 黒田三朗 他(2010) 『日本の小学校の国語教科書選』다락원
(1Q) 村上春樹(2010) 『1Q84』1, 2 新潮社
(朝日) 朝日新聞(天声人語) (2011年1月～11月)